

‘2022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 설계 — 현행 문법 교육 내용의 적합성 검증

양영희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제7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1.8.21.)에서 주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조언과 연구자의 연구 주제의 지평을 넓혀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I. 머리말
- II. 개정을 위한 선행 검토
- III. 현행 문법 교육 내용의 적합성 검증
- IV. 제언 및 맺음말

I. 머리말

주지하듯이 교육부는 2021년 4월 20일에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표방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①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교육 기반 마련, ②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③ 교육과정 체제 개선, ④ 교육과정 안착지원 체제 구축’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추진 전략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 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학습자들의 기본 역량 및 기초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풀이된다. 교육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온 과거 개정과 달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라는 점이 주목된다.¹⁾ 상식적인 말이지만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

1)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보고서(노은희·김현정·박종임·김종윤·김창원·이도영 외, 2021)를 발간하는 한편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청회(정혜승 2021)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취지를 제고할 만한 교육과정 총론이 마련되어야 하고 총론의 지향점이 각 교과 영역에 충분히 흡수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컨대 각 교과의 하위 단위인 영역별 교육이 개정 목적과 방향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지가 교육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국어과 그 가운데에서도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에 방점을 맞춘 본 논의의 당위성은 여기서 찾아진다.

2018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예고된 이후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화하는 교과의 속성을 외면하고 30년이 넘는 5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답습하는 이상 국어과는 변화의 큰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면서 항존성(국어교과)과 가변성(시대적 요구)의 균형 위에서 담대한 선택을 제언한 김창원(2019),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존 질서(‘교육과정’)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숙의의 필요성을 제언한 김종윤(2020), ‘언어 성장과 인간의 성장’ 관계를 중시하면서 내용 체계에 ‘인문 소양 범주’ 설정을 제안한 이성영(2020), 사회 변화에 따른 문식 환경의 변화 수용을 제안한 강민규(2020),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량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국어과 통합의 역량 설정 필요성을 강조한 이경남·김승현(2021)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계 전문가, 교사와의 협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가 최근 발간되기도 하였다(노은희 외, 2021). 본고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 의지하여, 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한 현재 문법 교육 내용(‘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개선점을 거칠게나마 제안함으로써 ‘2022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개정을 위한 선행 검토

사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연구자 스스로 국어 교육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학습자에게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면서 타 교과와 통합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전문한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택은 현재의 교육 내용으로 개정 방향과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만한 기준 설정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됨은 물론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교육계 내·외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개정 추진 과제를 종합·정리하여 점검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개정 추진 방향 및 국어교육계 내·외 요구 분석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과 과제(안)(교육부, 2021)는 다음과 같다. 본 논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발췌·정리함으로써 논지 중복과 전개의 느슨함을 피하기로 한다.

(1) ‘2022 교육과정’ 추진 과제(안) 일부

가. 인재상

- ① 배려와 포용: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포용적 가치관 실천
- ② 창의, 혁신: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
- ③ 문제 해결, 융합: 깊이 있는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적용
- ④ 주도성, 책임감: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사회적 책무성 함양

나. 개정의 기본 원칙·방향

- ① 자기 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②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지원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 ③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내용 강화
 - ※ 초·중학교에서도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다. 개정 과제

- ① (학교 변화)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 ② (중등) 자유학기(년) 활동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③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삶과 통합되어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로 역량 개념에 대한 재설계
 -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
 - 역량 재설계: 지능 정보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중심으로 학교급별·교과별 학습 경험 재구조화

라.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강화

- ① (수업 운영 다양화) 교과목 시수 중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 자율성 확대,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
- ② (학교 밖 학습 경험)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대학, 기업 등과 연계 및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 ③ (고교 창체 운영 예시): 교과 연계가 강화된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 ‘진로 탐구 활동’ 도입 및 교과·창체 간 이수학점을 균형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검토
- ④ (법교과 학습 주제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및 법안 등으로 의무 부

과되는 시수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법교과 주제 통합·조정

- ⑤ (주제+교과통합) 관련 주제를 교과 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활용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여기의 핵심 개념은 ‘배려와 포용, 창의·혁신, 문제 해결·융합, 주도성·책임감’을 가진 인재상((1)-가)과 ‘자기 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1)-나), 의무 시수로 인한 중등의 자유학기(년) 활동 개선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과 같은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역량 재설계((1)-다)’로 요약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총론에 부합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이 고시된 이후 총론의 핵심 개념을 국어과에 적합하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롯하여, 내용 체계 구성의 타당성 문제, 성취기준 해설 조항의 당위성 여부 등을 성찰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서영진, 2015; 이인화, 2018; 정혜승, 2016; 천경록, 2017). 노은희 외(2021: 85-87)은 이러한 견해들을 고려하는 한편으로 국어 교육계 내·외의 교사와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다음처럼 정리하였다.²⁾

- 2) 심사자 한 분께서 본고에 ‘문화 향유’와 ‘고등 정신 기능’과 같은 역량을 추가하여 논의할 것을 제언하였다. 연구자 역시 타당한 견해로 간주한다. 특히 문화 향유 역량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의는 (1)의 교육부 개정 방향과 (2)의 노은희 외(2021)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최소한의 논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여기서 이 두 역량을 고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최근(11월 27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발표가 있었지만 핵심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국어)문화 향유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탐구학습으로 고등정신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문법 교육 연구자는 ‘2022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임해야 하고, 이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2) 국어과 교육의 핵심 역량 설정 시 고려 사항

가. ① 통합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 ② 교과 간 연계·융합 강화 ③ 대학 및 직무 관련 준비 강화 ④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⑤ 언어 및 문화 다양성 이해 역량 ⑥ 인성 및 감성 역량

나. ① 기초·기본 역량: 국어 규범, 어휘력, 문법 능력, 언어 윤리

② 실용적 목적: 이해력, 표현력, 소통 공감 능력

③ 국어 문화 소양(특히 독서 경험)이 인성 및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

((2)-가)는 국어 교육계의 의견이고, ((2)-나)는 국어교육계 외부의 기대(요구)이다. 향후 핵심 역량이 어떻게 재설계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2)의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학계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전문가 및 행정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취합된 결과가 ((1)-나)에서 살핀 개정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의는 여기에 ((1)-라)의 ‘주제+교과 통합’을 더하여 현재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자유학년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 혹은 주제 간 통합 수업의 여부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3) 문법의 교육 내용 검토 기준

가. 핵심 역량: 통합적 의사소통 역량, 인성 및 감성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기본 역량(국어 규범, 어휘력, 문법 능력, 언어 윤리), 대학 및 직무 관련 역량, 문화·언어 다양성 인식 역량

나. 주제+교과 통합: 교과 간 연계·융합

((3)-가)는 ((2)-가, 나)의 요구를 ‘핵심 역량’ 범주로 통합한 것이고,

((3)-나)는 ((1)-라)를 가져온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위와 같은 핵심 역량을 키워준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1)-가)를 길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추구하는 인재상’에 포함된 ‘창의와 혁신’ 역량이 ((3)-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 될 수 있지만 검증 기준을 연구자의 생각보다 공신력 있는 조사를 준거로 삼기로 한 터여서 본 논의에서는 보류하기로 한다.

2. 현행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

그러면 현재 문법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는 그것을 정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정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

단위	성취기준	학교급
국어 본질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	[9국04-01]
	국어が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10국04-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1]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12언매01-02]
음운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9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10국04-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12언매02-01]
단어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9국04-04]
	단어의 짜임과 가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12언매02-03]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12언매02-04]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12언매02-02]
	의사소통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다.	[12실국01-02]

문장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9국04-06]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10국04-03]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12언매02-05]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12언매02-06]
	국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12실국01-02]
담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2-07]
자료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2-08]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2-09]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2-10]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2-11]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발음한다.	[9국04-03]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9국04-08]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9국04-05]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10국04-04]
국어 태도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9국04-09]

위는 ‘국어본질 - 국어구조의 탐구와 활용(음운, 단어, 문장, 담화, 자료) -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 국어에 대한 태도’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를 준거로 하여 공통 교과와 선택 교과의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문법 교육의 목표를 ‘성취기준’에 제시하므로 그것을 교육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다만 학교급별 위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을 선정한 후에 공통 교과와 선택 교과의 목적 및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면 된다는

판단 아래,³⁾ 우선 교육 내용을 위처럼 총괄·정리하였다.⁴⁾

III. 현행 문법 교육 내용의 적합성 검증

〈표 1〉에 제시한 성취기준의 ‘해설’을 보면, ‘실제 국어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등과 같은 설명을 더함으로써 문법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수(학습)만이 아닌 실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유야 어떻든 문법 교육은 변화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에서 문법 영역을 여전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⁵⁾ ‘2015 국어과 교육과정’

- 3)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법 내용이 학교급별로 균등하게 편성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 선정 단계에서 그것의 위계까지를 미리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 근거한 결정이기도 하다. 가령 〈표 1〉에서 어휘와 품사까지를 포괄한 단어 단위는 ‘고등학교 국어’에 편성되지 않았다. 물론 ‘언어와 매체’의 연계를 고려한 듯하지만, 이 교과는 선택 교육과정에 해당하므로 공통 교육과정의 위계 설정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 4) 여기서 음영 처리한 ‘자료’는 ‘언어와 매체’의 설정 단위로 이에 대해서는 3.1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5)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어려움을 자성적인 관점에서 진술한 구본관(2016: 92)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참조된다.

국어과 전체가 모든 과목을 총괄하는 총론 팀, 다른 과목 교수나 교사, 일부 국어과 교사, 학부모 등의 공격 대상이 되지만 문법의 경우 국어과 내의 다른 영역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심한 공격을 받곤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문법 능력이 필수적이며, 문법 교육이 문법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실생활에 사용되는 국어의 원리, 즉 문법을 탐구하고 학습자의 언어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해서 이해를 받아야 한다. 문법 교육은 이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변신을 거듭하지만 여전히 국어 교육 밖의 검열, 국어 교육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검열, 스스로의 검열을 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개정시 ‘문법’ 영역을 선택 교과로 채택하지 않으려다 ‘문법’ 대신 ‘언어’라는 용어로 ‘매체’와 통합한 점만으로도 쉽게 읽히는 정서이다. ‘2022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전 진단에서도 ‘언어’와 ‘매체’의 통합이 문제점의 하나로 언급되기(노은희 외, 2021: 124)도 하였다.⁶⁾ 실용성 측면에서 문법은 기능 영역에 비해 지식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된 이유일 터이다.

이러한 관점이 ‘2022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때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조심스레 추정하는 연구자로서는 현재의 문법 교육 내용이 개정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보편·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라 생각한다.

1. 핵심 역량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별칭되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을 설정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차별된다. 국어과 교육에서의 핵심 역량 범주 및 개념에 대한 타당성 등이 꾸준히 논의되었지만(김창원, 2019; 노은희 외, 2021; 박영민, 2017; 서영진, 2015; 오윤주, 2016; 이경남·김승현, 2021; 정혜승, 2016; 조재운, 2017; 천경록, 2017),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 과제((1)-다)를 고려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⁷⁾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3)-가)에서 설정한 핵

6) 2021년 9월 17일에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라는 주제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매체와 언어’의 ‘언어 영역’을 ‘화법’과 통합하여 ‘화법과 언어’라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7)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기능 정보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중심으로((1)-다-③)’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되었고, 국어교육에서도 총론의 핵심 역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역량 개념을 수렴하여 새로운 교과 역량의 설정과 그에 따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제시가 필요(노은희 외, 2021)’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나 논의들은 결국

심 역량을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4) 핵심 역량

- ① 통합적 의사소통 역량, ② 인성 및 감성 역량, ③ 문제 해결 역량, ④ 디지털 리터러시, ⑤ 기초·기본 역량(국어 규범, 어휘력, 문법 능력, 언어 윤리), ⑥ 대학 및 직무 관련 역량

노은희 외(2021)에서는 이상의 개념들을 정확히 정의하는 대신 주형미·최정순·유창완·김중윤·임희준·주미경(2016: 390-401)의 정의를 통합·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후 논의를 진행하다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경우 주형미 외(2016)에 의지하기로 한다. 이런 점들을 전제하여 <표 1>의 내용을 점검하면, '③ 문제해결 역량'은 문법 교육의 모든 내용에 적용될 만하다. 현재 문법 교육은 탐구 학습을 중시하는바,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국어(문법) 교육뿐 아니라 여타의 모든 교육이 문제해결 역량에 관여되지 않을 바 없어서 현재의 논의 자체를 무위하게 만들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교수·학습법을 제외한 교육 내용만을 검증하기로 한다.

1) 기본 및 기초·통합적 의사소통·디지털 리터러시·대학 및 직무 기반 역량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어 교육계 외부에서는 '국어 규범, 어휘력, 문법 능력'을 국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국어 교과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려움(구본관 2016: 92)에 처하지만 정작 외부에서는 문법 영역의 기본에 해당하는 다음 (5)와 같은 교육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될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국어 규범 사용 및 어휘력 신장의 문법 요소

가. 정확한 국어 규범 사용

- 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10국04-04]), ②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발음한다([9국04-03]) ③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 생활을 한다([12언매02-11]), ④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2]), ⑤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12언매02-01]), ⑥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10국04-02].)

나. 어휘력 신장

- ① 단어의 짜임과 가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12언매02-03]), ②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12언매02-04]), ③ 어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9국04-05]), ④ 의사소통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다([12실국01-02]), ⑤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4]), ⑥ 실제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2-02]).

학습자들이 국어 교육에서 정확한 국어 규범을 익히고 어휘력을 신장시켜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어교육계 외부의 기대(요구)일 터인데,⁸⁾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문법 영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법 영역은 위 (5)와 같은 내용을 기본 지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문법 지식을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닌 정확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이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되기도 한다.⁹⁾

8) 국립국어원의 각종 국어 사용실태 보고서에서 문법 지식의 부족이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이병규, 2019: 50)되고 있음이 참조되는 대목이다.

9) 여기서 ‘국어 규범’이나 ‘어휘’적 측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운’ 단위를 ‘기본

여기에 더하여 ‘문법 능력’을 요구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기초 능력을 이용하여 상황과 맥락에 맞는 표현과 이해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주지하듯 문법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정확하고 효율적인 규칙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6) 문장, 담화의 문법 능력

가. 문법요소

[10국04-03] … 높임표현, 시간표현… 등의 문법 요소를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나. 문장

[12언매02-05] …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 흐름장이나 겹문장, 이어진문장이나 안은문장이 문맥에 따라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차이가 있을을 이해하며, 이를 구별해서 담화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다. 담화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담화 생산 및 수용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 (가~다)의 밑줄 친 부분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문법 요소나 문장의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담화’의 범위와 개념에 관한 이견이 없지 않지만,¹⁰⁾ 어떤

및 기초 능력’에 포함한 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에 대한 지식은 ‘표준 발음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4)-(가)에 포괄하였다.

10) 담화를 문장과 구별되는 맥락 의존적 언어(이병규, 2021)로 규정하느냐, 소형 발화를 포함한 문장 및 그 이상의 단위(신지연, 2021: 52)로 간주하느냐로 구별된다. 본 논의에서는

입장을 취하든 현재 문법 교육 단위로 설정된 문장과 담화는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법 능력은 ‘문법의 지식을 언어 생활(의사소통)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간주되는데, 위 (6)에서 확인되듯이 현재 문법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담화와 문장 단위로써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바는 이렇게 길러진 문법 능력은 통합적 의사소통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7) 자료의 통합적 의사소통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가. 개념 정의(주형미 외, 2016: 391, 396)

- ① 통합적 의사소통: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 활동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 ②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 및 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속하고, 정보를 통합·분석·평가하며, 지식을 구성하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생성·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흥미, 태도 및 능력(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n.d., para 2).

나. 자료

- ① [12연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이 성취기준은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국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 ② [12연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논외로 하기로 한다. 선불리 접근할 만한 가벼운 주제도 아니거니와 본 논지와도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 글의 갈래에 따른 언어적 특성으로는 기사문에서는 인용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 광고에서는 음성, 문자, 음향,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7)-가)에서 정의된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6)에서 살핀 문장, 담화 단위와 ((7)-나)의 ‘자료’ 단위의 내용으로 길러질 수 있다. 보다시피 어휘, 문장 등과 같은 문식성 단위뿐 아니라 음성, 문자, 음향, 동영상까지를 포괄하는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산·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는 점((7)-나-②)과 성별·세대 간의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는 점((7)-나-①)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요컨대 국어교육계 내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할 역량으로 간주하는 통합적 의사소통 및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문 규범에 관한 지식, 정확한 어휘 사용, 상황에 부합하는 문장 및 담화 등의 국어 자료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문법 능력의 바탕 위에 길러지는 역량으로 현재 문법 교육의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

이상의 문법 지식은 ‘직무 기반 관련’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관여한다. 변화될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의 성과를 고등 교육을 위한 학업 능력뿐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직무 및 생활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려는”(박재현·노국향, 2015: 31) 교육부 노력이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실용 국어’, ‘실용 영어’, ‘실용 수학’과 같은 선택 과목의 개설로 발현되었다. ‘실용 국어’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문법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실용 국어’ 문법 영역의 직무 기반 관련 역량

가. [12실국01-01] 의사소통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소통 장면이나 문서 서식 등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12실국01-02] 국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국어의 어법을 익히기 위해 설정하였다. 관련되는 문법 지식을 모두 다루기보다 문장을 정확하고 표현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앞서 살폈던 문장, 담화, 자료 단위의 일부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개설 목적 자체가 ‘취업’을 전제로 한 교과이어서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서식’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그러한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넓게 보면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문법 능력은 비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만을 신장시키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정확한 문장 구사 및 의사소통 능력까지를 신장시키는 데 관여함을 깨닫게 된다.¹¹⁾

2) 인성 및 감성 역량

주형미 외(2016: 400)는, 현재 국어교육에서는 문학, 화법, 쓰기 영역에서 ‘정서적 삶의 고양, 자아 성찰, 타자 이해, 배려하며 말하기, 독자의 존중과 배려, 책임감 있는 글쓰기’ 등의 내용으로 ‘인성·감성 역량’ 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마련이나 교육 방법의 개선은 아직

11) 다만 학습자의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에서는 문법과 직접 관련되는 성취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의 핵심 개념이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와 문화 활동,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앞서 살핀 문법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짓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 내용에 명시된 경우만을 인정하기로 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문법 영역이 담당할 역할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인성·감성 역량’의 필요성을 주형미 외(2016: 400)에서 찾아보았다.

(9) 인성·감성 역량에 대한 국어교육의 필요성 및 개념

2030년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라 언어·문화적으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 문화적 이질성과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교육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가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정체성, 좋은 삶의 지향을 성찰하는 한편, 존중감, 공감, 연민 또는 불의에 대한 불쾌감 등의 감성을 세련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

요컨대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적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어교육은 학습자에게 올바른 비판 정신과 좋은 삶을 지향하도록 자신을 성찰하면서 상대에 대한 여러 감성을 세련(洗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영(2020)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인문 소양’ 범주 설정을 주장하면서 문법교육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피력하였다. 즉 국어교육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인 ‘품위 있는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품성) 신장’의 측면이 ‘올바른 국어 생활’을 목표로 하는 문법 교육과 상통한다는 의미이다.

(10) 인성·감성 역량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가.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어휘의 양상은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나. [9국04-07],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실제 국어생활에서 담화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화자(필자)와 청자(독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담화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이 성취기준은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국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신어(新語)에는 비속어가 많음을 인식 하도록 하면서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장애인과 같은 소수 약자들을 편회 하는 어휘들을 순화하는 활동을 권장한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기도 하고 고운 표현과 배려하는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말의 품격이 곧 자신의 품격’임을 깨닫고 체화하는 경험을 갖는다면 ‘품위 있는 국어 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2. 주제 통합

교육부는 ‘주제+교과 연계·통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정 교과 지식의 강조하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보다 교과 간 연계 및 융합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주형미 외, 2016: 393)”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법 영역에서는 ‘문화·언어 다양성’을 지닌 학습자를 길러내는 측면에서 타 교과와 주제 통합이 가능하다.

1) '세대·성별·계층·문화적 차이' 인식

앞서 살폈듯이 문법 교육에는 다음처럼 세대·성별·계층·문화적 차이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국어생활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감성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11) 문법 교육에 반영된 언어 문화

가.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이 성취기준은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국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다양한 방언 자료, 해외에서 생산된 국어 자료,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 등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나. [9국04-051]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이 성취기준은 …어휘의 양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 어휘의 양상은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체계나 양상에 따라 어휘의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위에서 확인되는 세대간, 성별, 계층,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언어 양상에 관한 이해는 문화를 학습요소로 하는 다른 교과와 통합 수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등학교 사회·문화』(서범석·이원용·김중록·최승태·송민구·최서윤, 2018: 106)에서는 문법 교육의 주된 내용인 세대 간의 언어 사용 양상을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이라는 단원의 일례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양영희, 2021). 이러한 통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교과에서도 찾아진다.

(12) '언어 문화'로 연계·융합 가능한 타 교과와의 성취기준

가. 사회·문화

- ① [12사문03-02]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한다.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반문화 등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하위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 통합사회

- ①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지역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맥락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문화 상대 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화와 타문화를 보편적 윤리 차원에서 성찰함으로써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한다.

- ②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다룰 때, 다문화 사회의 갈등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면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생활 윤리

- ① [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윤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관용의 태도를 지님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 한국지리

① [12한지06-03]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한다.

... 국제 이주 및 이주자들의 국내 정착 과정 및 이로 인해 나타나
는 사회·공간적 변화를 파악한다. 또한 다양한 민족(민종)적, 문화
적 혼종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문화 공간의 특성을 사례 지역을
통해 탐구한다.

앞의 (11)과 같은 문법의 학습 요소는 ‘문화’를 매개로 여러 교과와 주
제 연계·통합이 가능하다. ‘사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배려를 주제로
하여,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언어 자료를
탐구·순화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고교학점제나 자유학년(기)
제에서 추진하는 교과 간의 융합과 연계의 기회는 확장될 것이다. 구본관
(2017)에서 ‘배려’의 관점에서 국어과와 도덕과의 통합을 논의한 바와 맥을
같이 한다.

2)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

타 교과와 통합이 가능한 또 다른 문법 영역의 주제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 방안’이다. 문화의 차이가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이
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전향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정치
적 이질성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향을 달리 하였다.

(13) 남북한 언어 차이를 주제로 한 타 교과와 통합

가. 문법

[9국04-09] 통일 시대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이 성취기준은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통일 시대의 국어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현재의 남북 언어는 무엇이 다른지,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 언어의 차이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지 등을 비롯하여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나. 통합사회

[10통사08-03]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다룬다.

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6-02]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첫째, 학생들이 … 민족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가적, 개인적 노력에 대해 탐구하고 성찰해 봄으로써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지듯이 문법 영역의 ‘남북한 언어 이질성 극복 문제’는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등의 교육 내용 일부에 해당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통합 사회』(박병기·박철웅·이영호·이우평·김신철·김지현 외, 2018: 250) 활동에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남북의 언어 이질화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위의 교과과는 남북한 통일을 둘러싼 쟁점, 통일 이후의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들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

는 통합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²⁾

이상, 현재의 문법 교육으로는 국어교육계·내외 요구(핵심역량), 타 교과와 통합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문법 영역이 ‘2022 국어와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법 영역의 핵심 역량

단위	성취기준	(핵심) 역량	주제+교과 통합
국어 본질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음운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기초·기본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기초·기본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기초·기본	
단어	단어의 짜임과 가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기초·기본, 인성·감성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기초·기본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기초·기본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기초·기본	
	의사소통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다.	기초·기본, 직무	

12) 학술 대회 때, 토론회 선생님께서 ‘국어의 본질’ 단위의 교육 내용으로 주제 통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주시었다. 가령 언어의 본질은 인문학의 기본 지식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다른 교과의 주제와 연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점이다. 매우 귀한 조언으로 생각되지만, 현행 다른 교과에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연구자로서는 다른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문장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문법, 의사소통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문법, 의사소통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문법, 의사소통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문법, 의사소통	
	국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문법, 직무	
담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문법, 의사소통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문법, 의사소통	
자료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문법, 의사소통, 인성·감성	사회·문화, 통합사회, 생활윤리, 한국 지리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문법, 의사소통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문법, 의사소통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기초·기본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발음한다.	기초·기본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기초·기본, 인성·감성	사회·문화, 통합사회, 생활윤리, 한국 지리
국어 태도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인성·감성	통합사회, 생활윤리

위와 같은 대응 관계는 단선적이면서도 임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으며 문법 교육은 문법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데, 특정 단위의 능력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면들을 충분히 예측함에도 지금까지의 시도를 감행했던 이유는 본 논의의 목적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 설계 방향을 타진해 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개정 과정을 반추할 때 이번에도 문법 영역은 적지 않은 난관에 직면하리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출발한 만큼 철저히 외부의 관점에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검증해 볼 요량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법 교육도 학습자들의 탐구력을 키워주고, 기능 영역의 기반 지식으로 활용되며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닌 ‘문법 사용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항변하면서, 타 영역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필요성을 검증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IV. 제언 및 맺음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문법 교육 내부로 돌리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검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문법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교육 내용은 존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과 함께 재고해야 할 면들이 없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까닭이다.

1. 본위론적 문법 교육 내용 인정

“국어 교과는 자재(自在)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개념과 실체가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김창원, 2019: 72)는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교육의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어 교과는 여전히 자재하며 영역 또한 자재하다. 영역의 본위론적 교육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핵심 역량에 방점을 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도 전체 체계를

‘기능-지식-태도’로 구성하고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도 각 영역에서 획득해야 할 기초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 본질과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14) 가. 국어의 본질

- ①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9국04-01]).
- ②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1-01]).
- ③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12언매01-02]).

나. 국어사

- ① 국어가 변화하는 실제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10국04-01]).
- ②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2-08]).

다. 훈민정음

- 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9국04-08]).

‘국(언)어의 본질’은 비단 문법 교육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한 인문 교양의 측면에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다. 언어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변화’를 ‘국어사’ 측면에서 어휘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 설정과도 통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자료의 이해’는 언어의 변화적 속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탐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지닌다.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 파악과 ‘한글 창제 원리(태도 단위)’에 관한 탐구 또한 특별히 문법 영역이 아니더라도 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에게는 당연히 되는 교육 내용이다.

따라서 비록 핵심 역량을 키워주기에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교육 내용은 문법 영역의 기본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손색이 없다.

2. 편성의 불균형 재고

핵심 역량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교육 내용까지를 위와 같은 논리로써 문법 영역으로 수용하여, 결국 ‘문법 교육은 현재 이대로 충분하다.’는 식의 정해진 결론을 위한 논의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소 경직된 제삼자의 관점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문법 영역의 개선점이 전혀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단위와 중복된 교육 내용의 정리는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1) 단위 및 교과 간 교육 내용

먼저 ‘언어와 매체’의 자료 단위 설정이다. 성취기준과 해설을 보면 ‘자료’는 현재의 ‘단어, 문장, 담화’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내용 체계의 중심축인 ‘언어 사용 목적(정보전달-설득-친교-정서표현)’을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 문화, 자료’라는 개념으로 수용했다는 이성영(2020: 83)의 의견을 참조하면 ‘기능’적 성격이 강한 ‘언어 사용 목적’을 문법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속의의 결과로 추정되지만 부자연스런 면이 없지 않다. ‘자료’ 단위에 설정된 내용들이 위와 같은 개념의 ‘언어 사용 목적’과 특별히 부합되는 면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보다는 어휘, 문장, 담화 단위에 포괄하여 생생한 자료를 통해서 이들을 이해하고 국어활동을 하도록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현재의 ‘자료’ 단위는 기존 언어 단위로 분할·수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공통 교과와 선택 교과 편성의 불균등도 문제시된다.

(15) 교과 간 교육 내용 편성

가. 단어

- ㉔ 공통: ①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9국04-05]), ②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4])
- ㉕ 선택: ① 실제 국어 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2-02]), ② 단어의 짜임과 가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12언매02-03]), ③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12언매02-04]), ④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12언매02-09]),¹³⁾ ⑤ 의사소통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다([12실국01-02])

나. 국어 본질

- ㉔ 공통: ①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9국04-01]), ②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4])
- ㉕ 선택: ①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1-01]), ②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12언매01-02])

우선 선택 교과인 ‘언어와 매체’에는 설정되었으면서 정작 공통 교과인 ‘고등학교 국어’에 배정되지 않은 교육 내용이 있다. 예컨대 ((15)-가)의 ‘단어의 짜임과 양상(㉔-②)’과 ‘단어의 의미 관계 탐구(㉔-③)’는 ‘언어와 매체’에 편성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국어’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에는 단어 단위 전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

13) ‘언어와 매체’의 ‘자료’ 단위로,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을 이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단어 단위의 내용으로만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단어 차원으로 접근한 점을 고려하였다.

다. 만약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학습자라면 고등학교에서는 ‘단어의 짜임과 의미 관계’는 물론이고 ((15)-가-㉔)의 내용 전체를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5)-나)의 ‘국어 본질’ 또한 고등학교 국어에는 배정되지 않고 ‘언어의 매체’에만 배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학습자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질 확률이 적지 않다.

이와 관점은 달리 하지만 학교급 별 교육 내용 편성의 불균형도 고려 대상이다. 문법 내용은 ‘중학교 국어’ 9개, ‘고등학교 국어’ 5개, ‘언어와 매체’ 14개, ‘실용 국어’ 2개로 총 28개인데, ‘고등학교 국어’의 배정이 매우 적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을 중학교에 배정하고, 고등학교는 선택 교과와 연계하여 구성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되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학습자의 교육 결손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단어와 문장이 전체 편성의 46%(13개)에 해당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단위와 비교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16) 음운, 담화, 국어사 교육 내용

가. 국어사

- ①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10국04-01]), ②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12언매02-08])

나. 음운

- ①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2]), ②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10국04-02]), ③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12언매02-01])

다. 담화

- ①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7]), ②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12언매02-07])

보다시피 국어 교과 전체에 국어사가 2개, 음운이 3개, 담화가 2개로 편성되었다. 교육량이 다를 수 있고 교육 정책에 따라 중요도를 다르게 판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배분이 최선인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담화는 현재 문법 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의 (5)에서 살핀 대로 문법 요소, 문장에 대한 학습을 ‘담화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언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할 때 그러하다. 그런데 ((16)-다)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작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배우지 않고 ‘언어와 매체’에서 개념, 특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이론만을 배우도록 되어서, 아쉬움이 따른다.

2) 교육 내용 중복

‘2015 교육과정’ 개정 당시 문법 영역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중복된 교육 내용이 적지 않다.

(17) 교육 내용의 중복 양상

가. 음운

- ①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9국04-02]), ②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10국04-02]), ③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12언매02-01])

나. 문장

- ㉮ 공통: ①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9국04-06]), ②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10국04-03])
- ㉯ 선택: ③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12언매02-05]), ④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12언매02-06]), ⑤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12언매02-10]), ⑥ 국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12실국01-02])

음운의 경우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이 공통 교과와 선택 교과에 반복적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음운 변동의 경우 전자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심화 과정인 후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지만, 자음과 모음 체계는 그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문장 단위에서도 찾아진다. 중·고등학교 국어의 ‘문장의 짜임과 양상, 문법 요소’가 ‘언어와 매체’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이 ((17)-나)에서 확인된다. ‘언어와 매체’는 중·고등학교 ‘국어’의 심화 단계인 만큼 난이도가 다르므로 문제될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또 문법이 ‘내재된 언어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단위별로 고정된 내용 이상의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겠으나, 문법 영역 내에서도 교육과정 개정 취지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하다. “지금까지의 관습을 반복하거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의 학문 체계에 얽매어서는 미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김창원, 2019: 73)는 관점이 비단 타 교과에 대한 국어교육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법 교육 내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문법 교육은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은 국어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21.10.23.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민규(2020), 「교육과정의 사회적 전망과 해석으로서의 문식 환경 이해」, 『국어교육』 170, 1-51.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구본관(2016),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1(1), 91-133.
- 구본관(2017), 「국어과와 도덕과의 교과 통합 교육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어문론총』 72, 9-45.
- 김종윤(2020), 「국가·제도적 교육 환경의 변화 동향과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국어교육』 170, 53-80.
- 김창원(2019), 「기रो에 선 국어교육-‘국어’ 교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국어교육연구』 70, 69-104.
- 노은희·김현정·박종임·김종윤·김창원·이도영·정혜승·민병곤·김은성·김정우·이기봉(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CRC 2021-1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병기·박철웅·이영호·이우평·김신철·김지현·이철훈·서정일·김원일·강봉균·김민재·신희정(2018), 『고등학교 통합 사회』, 서울: 비상교육.
- 박영민(2017),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의 영역 성취기준 제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법」, 『작문연구』 32, 61-82.
- 박재현·노국향(2015), 「직무 기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적 구조와 평가틀 설계」, 『국어교육』 149, 29-52.
- 서범석·이원용·김중록·최승태·송민구·최서윤(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지학사.
-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청람어문교육』 56, 67-106.
- 신지연(2021), 「표준문법에서의 ‘담화론’의 내용 정립에 관하여」, 『국어학』 98, 31-58.
- 양영희(2021), 「새말을 매개로 한 국어교육 내·외 통합 학습 수업 설계」, 『새국어교육』 126, 307-340.
- 오윤주(2016), 「국어과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 『국어교육』 154, 229-256.
- 이경남·김승현(2021),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량과 기능의 개선 방향」, 『독서연구』 58, 83-105.
- 이병규(2019), 『국어문법교육론』, 서울: 집문당
- 이병규(2021), 「담화와 국어 교육」, 『국어학』 98, 59-82.
- 이성영(2020),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개선 방안-‘인문 소양’ 범주를 제안하며」, 『한국초등국어교육』 68, 77-102.

- 이인화(2018),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의 교과역량화 양상 분석」, 『청람어문교육』 65, 7-36.
- 정혜승(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심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교육과정연구』 34(3), 29-50.
- 정혜승(2021. 9. 17.), 「역량 함양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안)」,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발표, 온라인 공청회.
- 조재운(2017), 「핵심 역량 중심 국어과 융합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어문교육』 22, 5-40.
- 주형미·최정순·유창완·김중윤·임희준·주미경(2016),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I)(RRI 2016-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천경록(2017), 「국어과 ‘핵심 개념’의 의미 탐색」, 『청람어문교육』 63, 41-65.

‘2022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 설계

— 현행 문법 교육 내용의 적합성 검증

양영희

본고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대한 문법 교육 내용의 적합성 정도를 검증하여,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국어교육계 내·외 전문가 집단에서 국어과에 기대하는 핵심 역량과 교육부 차원의 개정 추진 과제를 종합·정리하여 점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국어 교육계 내·외에서 국어과에 요구하는 ‘국어 규범 사용 및 문장 쓰기’ 등의 기본 지식, 통합적 의사소통, 디지털 리터러시, 대학 및 직무 능력 등은 ‘어문 규범, 어휘, 문장’ 등의 단위를 설정하여 이들의 사용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현행 문법 교육 내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성 및 감성’ 역량은 ‘계층, 성별, 세대, 지역’등을 고려한 어휘 사용 능력을 중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담화 사용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현재의 문법 교육 내용으로 길러낼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법 교육의 내용은 계층, 세대 간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갖는 ‘통합 사회, 사회·문화, 한국 지리’ 등의 교과와도 ‘주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문법 교육 내용으로도 ‘2022 교육과정’의 취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문법 교육의 내용 선정 및 학교급 간 배정 및 위계 설정에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단어, 품사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어휘’ 단위라 선택 교과인 ‘언어와 매체’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공통 교과인 고등학교 ‘국어’에는 전혀 배정되지 않는 점 등이다. 둘째 국어사와 음운, 담화 단위가 절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셋째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점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러한 면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2022 개정 교육과정, 문법 교육 내용, 핵심 역량, 주제 통합, 교과 간 통합,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 설정

The Design of Grammar Curriculum Contents of the 2022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Revision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the Current Grammar Curriculum Content

Yang Younghee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by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the grammar curriculum. Accordingly,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expected by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and the implementation of tasks at the ministerial level are summarized and set as the inspection standard.

This confirmed that the current grammar education can cove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munity's basic knowledge requirements, such as “using Korean norms and writing sentences,” integrated communication, digital literacy, and university and job competency, by setting up units such as “language norms, vocabulary, and sentences” to develop learners' abilities. It also confirmed that “personality and emotional” competency could be nurtured with the contents of the grammar curriculum, which emphasizes vocabulary usage in consideration of “class, gender, generation, and region” and aims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discourse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ntext. The curriculum content can be based on “integration” with subjects such as *Integrated society*, *Society and culture*, and *Korean geography* that concern language use between different classes and generations.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purpose of the *2022 Curriculum* can be improved even with the current grammar curriculum.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selection of the grammar curriculum content, its assignment to respective school levels, and the hierarchy

established. First, the “vocabulary” units, which can encompass words and parts of speech, have been assigned to the optional subject *Language and media* and not to high school *Korean language*, which is a mandatory subject. Second, the units on Korean language history, phonology, and discourse are less organized, and third, there are cases where the curriculum contents overlap.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ubsequent curriculum revision.

KEYWORDS 2022 Curriculum Revision, Grammar Curriculum Contents, Core Competencies, Topic Integration,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Setting the Hierarchy of Grammar Curriculum Contents